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런 걸 다 놓으십시오. 우선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뜻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 동생 같고 자식 같고 형제 같은 겁니다, 모두. 연세가 높으신 분은 내 부모 같고 모두 이렇습니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정해 놓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빨리 싹이 날 수도 있고 더 빨리 클 수도 있고, 아주 밑에서 싹도 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 가지고는 까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 까지니까. 까지기는 해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생각이 나거든 맡겨 놓고 저 생각이 나거든 또 맡겨 놓고, 울고 싶거든 주인공 붙들고 울고 감사하거든 주인공 붙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 년 계속 가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모두 겉껍데기로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남이 불을 꺼 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지, 누가 불 꺼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 주고 저것도 보여 주고 꿈으로도 보여 주고 생시에도 보여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습니까.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라,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은 안 변하는데

질문 모든 게 고정됨이 없다 하지만 저의 남편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남편도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모든 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둘이 너무도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에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고만 죽어 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합시다.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쪼끔도 깔축은 없는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지혜가 있고 '좀 더 하면은 좋을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모든 각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 지구에도, 어떠한 물체에도, 어떠한 별성에도 통신이 되는 겁니다. 전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한테 뭐든,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봅니까, 네? 왜 거길 봅니까?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그 그릇에서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해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 더 이렇게 해서 내면은 좋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를, 이거는 "이 접시에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겁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이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거든요.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됩니다.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서 '아, 그때는 이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을 다른 거를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정되게만 보지 마시고 둘이 아니게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잘못이 후회가 됩니다

질문 요즘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살피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 많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장난으로 개구리도 죽이고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서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린 일생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면 부자대로 속이 썩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괴롭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보물 같은 거를 지니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 보물들이 따라갑디까? 바로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방문 안에서 "잘 가라. 얘, 언제 봤더냐!" 하고. 그래서 보물더러 "너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하니까 보물은 "네가 좋아서 나를 따랐지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간 게 아니지 않으냐." 하고는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로 대문 안에서 고합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죠. 권세가 아무리 높고 친척이다 부모다 자식이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를 비롯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혼합이 될 때에 이 업식도 따라서, 그 영혼에 따라서 첨보가 됩니다. 첨보가 돼서 바로 인간이 형성된다면 그 또 역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지은 것을 부르짖지 말고 현실에 나오는 것을 소멸시키면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역점을 둬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어쩌다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밭을 못 쓰게 만든다 할 때에 고삐를 탁 쥐면서 '야, 너 그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하고 탁 채는 그 마음이 바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일체 내가 살아나가는 거, 일거일동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거는 바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선 굴려서 놓는 겁니다.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굴려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자기 주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범부로서 깨달을 수 있는지…

질문 출가 수행자들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득도할 수 있겠지만 속세에서 살아가는 저희 범부 중생들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는지요.

답변 물론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살든 못살든 또 못났든 잘났든 자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불성은, 즉 말하자면 지금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말합니다마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각자 자기들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보배답게 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나라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 거뿐만 아니라 강도도 많이 생기고 사기도 많이 생기고, 이건 분란이 한두 건이 아니죠. 애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지요.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어야 한다. 그 나무와 뿌리와 같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고 남의 이름과 남의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니 그것은 몇백 몇천 년 가도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만이 너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신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일일시호일

신장 손상으로 투석 받는 미얀마 출신 외아들
"다시 일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고파"
민모 씨, 건설현장서 일하며 부모 부양
복통·구토 끝 장 수술 받고 투석 시작
병원비 2000만 원…쌓이는 치료비에 막막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